## 플라톤의 『고르기아스』에서의

# technē와 dynamis\*

전 헌 상

【주제분류】서양고대철학

【주요어】기술, 힘, 수사술, 욕구, 자기보호

【요약문】본 논문의 목표는 기술[technē]과 힘[dvnamis]의 두 개념을 중심으 로. 플라톤의 『고르기아스』의 다양한 표면적 주제들을 가로지르는 통일성 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고르기아스』에서 이 두 개념과 그것들간 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플라톤의 철학적 성찰은 어떤 의미에서도 단선적이 거나 직접적이지 않다. 즉 그 성찰은 각 단계에서의 명시적 주제를 둘러싼 대화상대자들 간의 논의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심화되어 나가며, 그러한 표면적 내용들의 전개 속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 모습 을 드러낸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전개와 심화의 과정을 소크라테스와 폴로 스,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칼리클레스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필자 는 소크라테스와 폴로스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기술과 힘의 개념이 연관되 어 설명되고 있는가를 검토한 후, 이어지는 논전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함'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두 개의 상반되는 힘 개념이 충돌하고 있 음을 보인다. 표면적으로, 이 두 힘 간의 충돌과 긴장은 소크라테스가 폴 로스를 논박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손쉽게 해소되는 듯 그려진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논박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폴로스는 단지 그것을 제 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주장할 수 있었던 힘의 개념을 충분히 견지하지 못했음이 드러난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플라톤은 폴로스 논박 에 내포된 문제와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칼리클레스라

<sup>\*</sup>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32-A00042)

는 더욱더 강력한 대화상대자를 등장시킴으로써 공식화시키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칼리클레스는 소크라테스와 폴로스의 논전에서 완전히 제압되지 못한, 소크라테스적 힘과 대비되는 힘의 개념의 옹호자임이드러나게 된다. 필자는 플라톤이 『고르기아스』에서 이 두 힘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키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있으며, 대화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긴장은해소되지 않은 채 남겨지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사실은 플라톤이 『고르기아스』를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가지는 한계를 극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새로운 철학적 과제를 부과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I. 들어가는 글

현전하는 중세의 사본들과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기록에 따르면 『고르기아스』는 『수사술1)에 관하여[hē peri rhētorikēs]』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다. 형식상 이 부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르기아스』의 모든 논의들이 수사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하기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고대로부터 수사술은 『고르기아스』의 궁극적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고르기아스』는, 고대의 학자들, 그리고 현대의 많은 학자들의 판단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정치학의 도덕적 기초에 관한 저작이다.2)이 판단은 실제 텍스트의 내용에 의해서도 잘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크라테스가 여러 대목

<sup>1)</sup> 이 글에서는 'rhetorkē'에 대해서는 '수사술', rhētor에 대해서는 '연설가'를 번역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김인곤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두 단어의 번역 어로 연관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는 어색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인곤 2011, 220-2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통한 설득의 힘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이 글의 방향에 '연설술'보다는 '수사술'이 더 잘 부 합하는 번역어로 판단된 점, 그리고 수사술이 보다 널리 통용되고 있는 번역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기의 번역어들을 선택하였음을 밝혀 둔다.

<sup>2)</sup> 여기에 관한 역사적 개관에 관해서는 Dodds 1959. 1을 참조할 것.

에서 논의의 핵심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은지, 혹은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기때문이다. 『고르기아스』는, 그렇다면 일종의 단계적 발전 구조, 즉 수사술이 일종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 주제로 도입되고, 그것으로부터점차로 핵심 주제인 올바른 삶의 방식과 진정한 정치술의 성격으로논의가 전개되어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텍스트적 상황하에서 『고르기아스』의 연구자들에게 자연스럽 게 부여되는 과제는 그러한 상이한 논의주제들 속에서 대화편 전체의 통일성(unity)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필 자는 『고르기아스』의 표면적 주제들이 차례로 등장하고 퇴장하는 과 정 속에서 일관된 저류(低流)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고르기아스』가 가지는 통일성의 주요한 측면 하나를 명료화해 보고자 한다. 그 주제는 바로 기술[technē]과 힘[dynamis]의 두 개념이다. 이 두 개념은 『고르기아스』에서 수사 술이나 올바른 삶의 방식만큼의 명시적인 주제는 아니다.3) 하지만 『고르기아스』의 표면적 주제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그 논 의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전개되어가는가를 이해하는 데에는 두 개념 과 그것들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글이 진행되어 나가면서 점차로 분명해지겠지만, 『고르기아스』에서 기술과 힘에 관한 플라톤의 철학적 성찰은 어떤 의미에서도 단선적이거나 직 접적이지 않다. 즉 그 성찰은 각 단계에서의 명시적 주제를 둘러싼 대화상대자들 간의 논의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심 화되어 나가며, 그러한 표면적 내용들의 전개 속에서 간접적인 방식 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개와 심화의 과정을, 소크라테스와 그의 세 대화 상대자, 즉 고르기아스, 폴로스, 그리고 칼리클레스 간의 논전들의 주요 부분들을 차례로 검토해 가면서 구명

<sup>3)</sup> 이 문장에서도 분명해지지만, 필자는 기술과 힘 개념이 『고르기아스』의 중심 주제, 혹은 수사술 비판의 주된 도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 다. 익명의 심사자는 필자가 플라톤이 수사술을 비판하는 목적이 무엇인 지 오해했다고 말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을 오해한 듯하다.

해나갈 것이다. 필자는 특히 소크라테스와 폴로스, 그리고 소크라테스 와 칼리클레스 간의 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우선 소크라테스와 폴로스의 대화와 관련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함'이라는 주제를 중 심으로 두 개의 상반되는 힘 개념이 충돌하고 있음이 보여질 것이다. 표면적으로, 이 두 힘 간의 충돌과 긴장은 소크라테스가 폴로스를 논 박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손쉽게 해소되는 듯 그려진다. 하지만 필자 는 소크라테스의 논박에는 사실 중요한 한계가 있으며, 폴로스는 단 지 그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주장할 수 있었던 힘의 개념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했음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동시에, 소크라테스와 칼리클레스의 대화부분에 대한검토를 통해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폴로스 논박에 내포된 문제와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칼리클레스라는 더욱더 강력한 대화상대 자를 등장시킴으로써 공식화시키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칼리클레스는 소크라테스와 폴로스의 논전에서 완전히 제압되지 못 한, 소크라테스적 힘과 대비되는 힘의 개념의 옹호자임이 드러날 것 이다. 흥미로운 점은 플라톤이 『고르기아스』에서 이 두 힘 사이의 긴 장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키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 심 화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는 점이다. 대화편의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겨진다. 이 사실은 필자가 보기에, 플라 돈이 『고르기아스』를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가지는 한계를 극 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새로운 철학적 과제를 부과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Ⅱ. 소크라테스 대 고르기아스

『고르기아스』의 길고 복잡다단한 논의 전체는다음과 같은 소크라 테스의 물음에서 출발한다. "그 사람(즉 고르기아스)의 기술의 힘[hē dymanis tēs technēs]은 무엇이며, 그가 공언하고 가르치는 것은 무엇

인가(447c1-3)?"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관심사가 크게 두 부분으로 이 루어져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고르기아스가 가르친 다고 주장하는 기술, 즉 수사술[hē rhetorikē]이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게 해주는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것을 다 른 기술들과 구별되게 해주는 고유한성격 혹은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둘 중 『고르기아스』에서 먼저 검토되는 것은 후자이다. 소크라테스는 수사술은 존재하는 것들 중 무엇에 대한 지식인가[peri ti tōn ontōn estin epistēmē]를 묻는다(449d9). 고르기아스의 답은 그 것이 "말들에 대한[peri logous]"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 나치게 광범위한 규정이다. 말들에 관한 모든 기술이 수사술은 아니 기 때문이다. 고르기아스는 새로운 규정을 제시한다. 수사술은 "사람 들이 하는 일들 중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일들에 관한 것(451d7-8)"이 며, 이때 '가장 좋은 것'이라 함은 "사람들 자신에게는 자유[eleutheria] 의 원인이 되고, 동시에 자신의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림[archein]의 원인이 되는 것(452d5-8)", 즉 "말들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to peithein ···hoion t' einai tois logois](452e)"을 의미한다. 하지만 설득의 기술 이라는 규정으로도 수사술의 범위는충분히 좁혀지지 못한다. 설득은 수사술이 아닌 다른 기술들, 예를 들어 산술과 관련해서도 행해지기 때문이다. 고르기아스는 설득의 범위를 다시금한정한다. 수사술은 "법 정이나 그 밖의 군중들 앞에서 하는 설득이며, 정의로운 것들과 부정 의한 것들에 관한 설득(454b5-7)"이다.

논의의 초점이 수사술의 힘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 대목에서부터이다. 소크라테스는 고르기아스로부터 그의 수사술이 청중에게 앎이 아닌 한갓 믿음[pistis]을 가져다주는 설득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데 대한 동의를 얻어낸다. 그리고 그는 각각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국가적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조언을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로부터 구하지, 연설가들로부터 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연설가는 대체 어떤 일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소크라테스의 물음에 대해서 고르기아스는

이제 자신이 수사술의 힘 전체[hē tēs rhētorikēs dynamis hapasa]를 드러내 보여주겠노라고 응대한다. 고르기아스는 묻는다. 아테네의 조 선소, 성벽들, 그리고 항구들의 건설은 누구의 조언에 의해 이루어졌 는가? 건축가들의 조언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테미스토클레스나 페리클레스와 같은 연설가들의 조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소크라 테스는 자신이 그런 점 때문에 수사술의 힘[hē dvnamis tēs rhētorikēs] 에 경탄하게 된다면서, 자신에게 그 힘의 대단함은 신적인 어떤 것으 로 보인다[daimonia…tis emoige kataphainetais to megethos]고 응대 한다(456a4-6). 한껏 고무된 고르기아스는 수사술의 힘에 대한 찬양 을 이어간다. 그것은 말 그대로 모든 힘들을 끌어 모아서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hapasas tas dynameis syllabousa hyph' hautēi echei] 그런 힘이다(456a8). 그것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는 심지어 의사 도 설득할 수 없었던 환자를 설득해 치료를 받게 한 적도 있었을 정 도이다. 민회나 각종 모임에서 말로 경쟁이 붙었을 때에도, 청중은 의 사와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ho eipein dynatos] 을 선택할 것이다(456c1-2). 수사술에 능한 자는 다른 어떤 장인들보 다도 대중 앞에서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기술의 힘은 그만큼 크고 대단한 것이다[hē dynamis tosautē estin kai toiautē tēs technēs (456c6-7).

하지만 고르기아스가 바로 다음에 덧붙이고 있는 말이 문제의 발단이 된다. 그는 다른 기술들도 그렇듯이, 수사술도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때로 격투나 전투의 기술을 배운 사람이 그 기술을 부정의한 방식으로 사용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수사술을 배운 사람 역시 마찬가지이다. 비록 더한 설득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다른 장인들의 평판을 뺏어서도, 부정의한 일에 그 기술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고르기아스는 또 배운 기술을 부정의하게 사용한 사람 때문에 그 기술을 가르친 사람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것은 가르치는 자는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그것을 전해 주었음에도, 배운 자가 그것과 반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정의로운 것들과 부정의한 것들에 대한 설득을 가르칠 때 그것들에 대한 앎은 전혀 개입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만일 그게 아니라 그 설득이 그것들에 대한 앎을 포함한다면 학생들은 그것을 배우러 올 때이미 그 앎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앎을 수사술의 교사로부터 배우는 것인지를 묻는다. 고르기아스는 만일 학생들이 그것들을모르고 있다면 자신에게 그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발언이 고르기아스는 모순에 빠지게 만듦을 지적한다. 수사술을 배우는 자가, 그것의 교육 이전이건 이후이건, 정의로운 것들에 대한 앎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면,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정의로운 행위만을 하고 정의로운일만을 바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이것은 앞서고르기아스는 이야기했던바, 즉 수사술을 배운 사람이 그것을 부정의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했던 것과 양립할 수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르기아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논박이 정확히 어떤 점에서 성립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그 논박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4) 이 논쟁의 전모를 이 글에서 소개하는 것은

<sup>4)</sup> 도즈와 칸은 폴로스의 말처럼 고르기아스가 어떤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졌다고 보는 입장이다(Dodds 1959, 216; Kahn 1983, 79-84). 반 면 어윈은 『고르기아스』의 표면적 내용은 문제의 핵심을 오도하고 있다 고 본다. 그가 보기에 460e~461a에서 소크라테스가 고르기아스의 모순에 대해 제시하는 설명은 신통찮은(poor) 것이고, 461b3-c4에서 폴로스가 내 리고 있는 진단은 문제를 잘못 짚은(misidentify) 것이다(Irwin 1979, 128). 고르기아스의 난관이 부끄러움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점에 서 쿠퍼 역시 어윈과 같은 의견이다(Cooper 1999, 47), 소크라테스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은 비버스 루이스로부터 제기되었다. 그는 고르기아스가 소크라테스에 의해 정당하게 논박 당했다기보다는 "변증적으로 매복당했 다(dialectically ambushed)(Beversluis 2000, 314)"고 말한다. 고르기아스 와 소크라테스의 공방전이 가지는 철학적 함축에 대한 설명들 역시 다양 하다. 소크라테스의 논박술[elenchos]에서 부끄러움의 감정이 수행하는 역 할에 관해서는 박규철(2012)을, 소크라테스의 고르기아스 비판이 이소크 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되었는가에 관해서는 Barney(2010) 를 참고할 것.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고르기아스에 대한 논박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읽혀지든, 최소한 그것은 고르기아스가 찬양하고 있는 수사술의 힘 혹은 효력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은 아니라는 것이다. 고르기아스는 정의로운 일들에 대한 지식과 관련한 몇몇 전제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문제를 초래했다. 하지만 이문제는 최소한 고르기아스 다음의 대화상대자로 등장하는 폴로스가보기에는, 고르기아스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종류의 것이었고, 수사술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제 폴로스가 등장하면서 수사술, 특히 그것의 힘에 대한 검토는 보다 근원적인 수준으로 진입하게 된다.

#### Ⅲ. 소크라테스 대 폴로스

고르기아스와의 대화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수사술이 하나의 기술 [technē]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전제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수사술은 "어림잡고 용감하며 본성상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영리한[stochastikēs kai andreias kai physei deinēs prosomilein tois anthrōpois](463a7-8)" 영혼의 활동 이며, 한마디로 아침[kolakeia]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 수사술이 기술처럼 보이기만 할 뿐 실상은 숙련[empeiria]이며 숙달 [tribē]일 뿐이라고 말한다(463b4).

기술과 아첨의 차이는 전자가 최선[to beltiston]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즐거움[to hēdy]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몸과 영혼에는 그것들 각각에 최선인 상태가 존재하며, 그 상태를 목적으로 삼아 각각을 돌보는 기술이 존재한다. 몸의 경우 그 기술은 체육설[gymnastikē]과 의술[iatrikē]이며, 영혼의 경우 그 기술은정치술[politikē]인데, 이것은 다시 입법술[nomothetikē]과 사법술[dikaiosynē]의 두 부분으로 나뉜

다. 그런데 이 네 개의 기술 각각에 대해서, 그것들 각각의 탈을 쓰고[hypodyesthai] 자신이 그 각각의 기술인 양 행세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이것들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아첨이라 부르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위에서 언급된 네 개의 기술 각각에 네 개의 아첨을 대응시킨다. 체육술에는 치장술[kommōtikē]이, 의술에는 요리술[hē opsōpoiikē]이, 입법술에는 소피스트술[sophistikē]이, 그리고 사법술에는 수사술[rhētorikē]이 대응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소크라테스는 요리술의 예를 통해 아첨의 성격을 설명한다. 요리술은 최선의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때그때 가장 즐거운 것[to aei hēdiston]을 미끼 삼아 사람들을 기만한다. 그것은 의술의 탈을 쓰고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 그래서 무지한 자들 앞에서 어떤 음식이 이롭고 어떤 음식이 해로운가에 관해 요리사와 의사 간에 논쟁이 벌어진다면, 후자는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요리술은 아첨에 불과한 것이고 부끄러운[aischron]일이라고 말한다. 요리술이 왜 아첨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요리술은 요리를 맛보게 될 사람의 즐거움이 일차적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사는 그 사람의 요구와 취향에 부응하려고 노력할 뿐이며, 건강과 같은 객관적인 목표와 원리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지 않게 된다. 또 요리의 성공과 실패는 요리를 맛볼 사람의 판단과 독립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철저하게 소비자가원하는 바에 모든 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요리술은 본질적으로 아첨이 되는 것이다.

요리술은 또한 기술이 아닌 숙련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조처를 취하면서 그 각각의 조치의 이유[aitia]를 말해 줄 수 있는, 그 조처의 본성[physis]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logos]을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이다. 설명을 결여한[alogon] 것은 기술이라 불릴 수 없는 것이다 (465a3-7).5) 플라톤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

<sup>5) 501</sup>a에서도 유사한 설명이 반복 된다. 의술은 자신이 돌보는 것의 본성 [physis]과 수행하는 일들의 이유[aitia]를 고려하고 그것들에 대한 설명 [logos]을 제시할 수 있는 반면, 요리술은 즐거움에 관계하고 그것이 돌보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리술의 목적은 요리를 맛보게 될 사람의 즐 거움이다. 그리고 이 즐거움은 개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그리고 동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 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어떤 고정되 고 보편적인 목표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목표를 가지지 않는 활동은 필연적으로 그 활동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어떤 "객관적 기준(objective standard)6)" 혹은 "객관적 표준(objective norm)7)"을 결여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의 경우, 그것의 성공여부가 어떤 객관적 결과물이 생성되었는가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사용자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달려있게 되기 때문이다. 요리술의 목표인 즐거움은 "이 성적으로 결정 가능한(rationally determinable)"8) 것이 아니게 된다. 섭생의 문제와 관련해서 의사는, 영양공급과 관련된 여러 화학적 법 칙들에 대한 지식들을 일반적인 원리들로 삼아 무엇이 최선인가를 예 측할 수 있다. 반면 즐거움에 관해서는 그러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개인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바는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성적으로 결정불가능하고 예측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저 러한 조치가 그것을 야기할 것이라는 이야기, 즉 간단히 말해 원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요리사들은 특정한 요리 재 료들이 지난 번 만찬에서 많은 사람을 만족시킨 음식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재현하고자 하지만, 왜 그 재료들이 그런 효과 를 냈는가에 대한 원인을 알지 못하고 설명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실은 즐거움의 산출에 있어서는 그것을 산출하는 행위와 그

는 일 모두가 즐거움을 지향하며, 기술 없이[atechnōs] 즐거움을 향해 가면서, 즐거움의 본성도 원인도 고려하지 않고, 전적으로 불합리하게[alogōs], 사실상 아무런 구분도 하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숙련 [empeiria]과 숙달[tribē]에 의해서 단지 기억함으로써 보존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sup>6)</sup> Irwin 1979, 210.

<sup>7)</sup> Irwin 1995, 96.

<sup>8)</sup> Dodds 1979, 229 도즈는 이점과 관련해서 데모크리토스 단편 69를 언급 하고 있다. "모든 인간들에게 좋음 과참은 같다. 반면 즐거움은 사람마다 다르다."

결과물로서의 즐거움 사이에 성립하는 필연적 연관관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사실과도 연관되어 있다. 의술의 경우 관련된 목표, 즉 건 강과 그것을 산출하는 활동들 간의 필연적 연관관계에 대한 설명이주어질 수 있다. 하지만 즐거움을 목표로 하는 요리술이나 수사술의경우, 그러한 필연적 연관관계는 주어질 수 없다. 그러한 관계에 대한 앎이 아니라 개별 경험의 축적을 통한 숙련이 그것들의 기반이기때문이다. 이 점은 수사술이 가지는 힘과 관련해서도 함축을 가진다. 수사술은 종종 강한 영향력과 힘을 발휘하지만, 이 영향력과 힘은 일관된 것으로 행사되기 어려운 것이다.9)

이러한 생각들이 기술과 숙련을 구분하면서 플라톤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바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그 러한 생각들은 그가 『고르기아스』 내에서 수사술의 힘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때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플라톤은수사술이 기술이 아닌 숙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차이를 발생시키는 측면에서 제한된 힘 혹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가 실제로 수사술의 힘과 관련해 천착하고 있는 포인트는 그와는 조금 다른 것이다. 이하에서는 바로 이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어 볼 것이다.

우리는 기술과 숙련의 구분이 제시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소크라테스와 폴로스의 대화의 진행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둘의 공방전이 바로 수사술과 연설가들의 힘[dynamis]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술이 한갓 아첨에 불과하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폴로스는 즉각 반발한다. 당신은 훌륭한 연설가들이 국가에서 시시한 아첨꾼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오히려 그들은 국가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megiston dynantai] 사람들이다(466b4-5).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정반대의 주장을편다. 연설가들은 국가에서 가장 적은 힘을 가진[elanchiston…dynasthai] 사람

<sup>9)</sup> 김남두 2007, 58-59. 김남두가 필연적 연관 관계의 요구에 주목하고 있다면, 프클린은 목적론적 구조의 요구를 강조한다(Franklin 2005, 247).

들이라는 것이다(466b9-10). 이 주장은 폴로스를 놀라게 만든다. 연설 가들은 참주들처럼 누구든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고, 추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가장 적은 힘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소크라테스는 연설가들이나 참주들이 가장 적은 힘을 가진 자인 이유를 설명한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 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폴로스: 조금 전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최선으로 생각되는 것들[ha dokei autois beltista einai]을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소크라테스: 지금도 동의하는 바일세.

폴로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ha boulontai]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나는 아니라고 주장하네.

폴로스: 자신들에게 좋게 생각되는 것들[ha dokei autois]을 하는 데 도요?

소크라테스: 그렇다네(467b3-9).

폴로스가 보기에 이것은 실로 "고약하고 해괴핸(schetlia… kai hyperphyē) (467b10)" 주장이다. 그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말하도록 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플라톤 자신도 소크라테스의 말의 반직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원함(wanting)'에 대한 일상적인 어법에 더 부합하는 것은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된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연설가나 참주들이 자신들이 좋다고생각하는 일을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는 못한다고 소크라테스가 주장할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실제로 좋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크라테스는 a가 X를 원하다고 이야기될때 'X'자리에 대입되어야 할 것은 a가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a에게 실제로 좋은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원함의 대상에 관한 가장 자연스러운 이해와 설명의 방식은 아니다. 오히려 '원함'의 대상을 적시(摘示)하는 보다 자연스러운 용법은 원함이라는 심리적 사건일 발생했을 때 그주체가 머리에 떠올린 것, 그로 하여금 무언가를 원하게 만든 그 특정한 생각 혹은 기술(description)을 적시하는 것이다.10) 어떤 사람이 간장을 콜라로 착각하고 들이켰을 때, 그는 간장을 마시길 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콜라를 마시길 원했다고 말하는 것에 비해 명백히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학자들에 의해 종종 이용되는 구분을 도입한다면, 위의 예에서 콜라는 욕구의 의도된 대상(intended object)인반면 간장은 욕구의 실제적 대상(factual object)이라고 부를 수 있다.11) 그리고 위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종류의 대상 중 욕구의 대상을 적시할 때 더 자연스럽고 더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전자이다.12)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플라톤이 의도된 대상을 욕구의 대상으로 적시하는 것을 전혀 몰랐거나 전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메논』 77b-78b에서 확인된다. 이곳에서

<sup>10)</sup> 어윈은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원함'의 일상적 범위를 제한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와 폴로스의 대화가 시사하는 것은 '원함'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그것의 일상적 용법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상적 어법을 염두에 둘 때 폴로스가 느낀 당혹스러움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라고 할 수 있다(Irwin 1979, 141).

<sup>11)</sup> 이 구분은 산타스에 의해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Santas 1979, 187-188.

<sup>12)</sup> 일반적으로 말해서, "원한다(want)"나 "욕구한다(desire)"와 같은 동사들은 소위 내포적 맥락(intensional contexts)을 지배한다고 이야기된다. 그리고 내포적 맥락은 지시적으로 불투명한(referentially opaque) 것으로, 즉 그 맥락 내에서는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상이한 표현들이 진리치의 변화 없이 대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의 살해자를 처벌하길 원했고 그 살해자는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로부터 오이디푸스가 자기 자신을 처벌하길 원했다는 결론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 이에 반해, 폴로스와의 논전에서 소크라테스는 욕구의 대상으로서의 좋음을 지시적으로 투명한(referentially transparent)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소크라테스는 나쁜 것들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는 일련의 논증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우선 나쁜 것들에 대한 욕구를, 그것들을 좋다고 생각해서 욕구하는 것과 그것들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구하는 것 둘로 구분한다. 그리고 그중 전자의 경우에 대해서, 나쁜 것들을 좋다고 생각해서 욕구하는 것은 나쁜 것들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좋은 것들에 대한 욕구로 간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욕구의 대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좋은 것들은 실제로 좋은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간주된 것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이때의좋음은 욕구의 실제적 대상으로서의 좋음이 아니라 의도된 대상으로서의 좋음인 것이다.13) 이것은 『고르기아스』에서 부정되고 있는 바로그 동일성이 긍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플라톤은 욕구의 대상으로 의도적 대상을 적시하는 것을 몰랐거나 그것을 전적으로 거부한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폴로스와의 논전에서 소크라테스가 욕구의 대상을 실제적 대상으로 한정시키고 있는 — 혹은 플라톤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든 —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의도는 무엇인가? 필자가 보기에, 그 답은 소크라테스가 그곳에서 연설가들과 참주들의 힘 없음을 보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과 떼어내어 이야기될 수 없다. 소크라테스는 그들이 폴로스의 주장과정반대로 무력한 자들임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연설가와 참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자임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수 있는 무력함의 징표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그 징표가 연설가나 참주에게서 발견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의도한 결론은 욕구의 대상에 대한 보다 덜 자연스러운 설명방식을 전제로 할 때에만 이끌어내질 수 있는 것이다. 보다 더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설명방식을 따를 때 그의 논변은 그 한계를 드

<sup>13)</sup> Scott 2006, 49. Cf. Kahn 1996, 245-7. 좋음에 관한 욕구와 관련 된다 양한 해석들에 대한 개관은 Mctighe 1999, 264-267을 참고할 것.

러내게 된다.

이제 우리는 욕구의 목적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독특한 설명방식이 가지는 함축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 특히 중요한 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소크라테스의 설명은 오직 한 종류의 좋음만을 논의영역에 포함시킨다. 둘째, 그의 설명 속에서는 행위자의 삶 전체와 관련된 총체적 가치판단과 독립적인 어떤 객관적 사태의 실현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우선 두 번째 포인트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자. 의사 C가 참주 A 의 사주를 받아 A의 정적 B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교묘한 방법으 로 독살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C는 B의 죽음을 원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다고 말할 것이고, 소크라테스는 그렇 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덧붙일 설명을 짐작하기는 어 렵지 않다. B를 은밀히 독살하는 행위는 부정의한-논의의 편의상 이 점은 전제로 하도록 하자-행위이다. 그리고 부정의한 행위를 하는 것은 C의 영혼에 나쁜 일이고, 따라서 실제로 C에게 좋은 일이 아니 다. 그런데 누구도 자신에게 실제로 좋지 않은 일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C는 B의 죽음을 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 결론에 C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무능한 자라는 주장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욕구의 대상에 관한 더 자연스러운 해석 방식, 즉 그것을 실제적 좋음이 아닌 의도된 좋음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취 하고 문제의 사태를 살펴보면, C가 B의 죽음을 원했다고 말하는 데 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게 된다. C는 B의 죽음을 좋은 일로 간주한 것이고, 그렇게 간주한 것으로써 그 사태의 실현을 원한 것이기 때문 이다. 그래서 C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 것이다.

C가(소크라테스의 기준에서) 자신에게 나쁜 어떤 일을 원했다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C의 힘 혹은 능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함축을 가진다. 왜냐하면 일단 이가능성이 확보되고 나면, C에게 실제로 좋고 나쁨의 여부와 독립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사태를 하나의 실질적인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

보되게 되며, 이 가능성이 확보되고 나면, 그 사태를 효과적으로 실 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가 가진 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C의 경우 그가 B의 죽음을 원할 수 있다는 것은 C가 B의 죽음을 고정된 목표로 삼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바로 이 점이 중요한데-이 고정된 목표를 전제로 하고, 그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즉 의술에 대한 지식이 전무 한 필자와 같은 사람들이나 C보다 의술에 대한 지식이 모자란 다른 의사들보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바로 그 측면에서-논의의 편의상 이 점도 전제로 하도록 하자-C는 다른 누구보다 더 힘을 가졌다고[dynatos]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연 설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설명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으로 하 여금 특정한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는 객관적 사태를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적 기준에서 그 연설가에게 옳은 일인가 아닌가의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사태를 가장 효과적으로 산출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적시하는 것이 가능 해진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설득에 능한 사람, 가장 큰 힘을 가진 연설가일 수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적 설명방식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함혹은 효력을 우리는 '도구적인 함혹은 효력(instrumental power or efficacy)'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힘이 도구적이라 함은 그것이 목적에 대한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일단 설정된 특정한 사태를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에서이다. 사실 고르기아스가 수사술이 가지는 힘의 전부를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겠노라고 선언했을 때, 그리고 그 힘의 거대함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주제에 관한 논쟁에서도 연설가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을 때, 그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수사술이 제공하는 도구적 힘 혹은 효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그가 생각하는 뛰어난 연설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즉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에게 이롭다고 판단된 특정한 믿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만드는 것을, 말을 통한 설득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르기아스가 생각하는 수사술의 힘의 본질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시사한다. 그 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연설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청중의 믿음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며, 가변적인 상황에서 설정된 가변적인 목표를 그때그때 성공적으로 실현해내는 능력이다. 고르기아스에게 있어서, 말을 통한 설득의 힘은 무엇이 목적으로 세워지든 그것을 실현시키는 도구적 힘인 것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적인 설명틀 속에서 도구적 힘의 개념은 성립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 속에서 5공화국 최고의 고문기술자, 슈 타지(Stasi) 최고의 도청전문가라는 말은 공허한 소리의 울림일 뿐이 다. 그들은 그들에게 최선의 것을 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무능한 [adynatos]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소크라테스가 오 직 한 가지 종류의 좋음. 즉 행위자의 삶 전체와 관련해 평가되는 좋 음만이 어떤 사람의 힘 혹은 능력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처 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 리가 특정한 기술과 관련해서 그것이 가능케 해주는 힘 혹은 능력을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는 상이한 기술마다 상이한 종류의 좋음을 염 두에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의술과 관련해 유능한 사람과 건축과 관련해 유능한 사람이 상이한 목표와 관련해서 유능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안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가짐으로 해서 유능한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폴로스와의 대화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 는 종류의 좋음과 관련해서 그것을 산출하는 데 무능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결국 힘과 힘 없음, 유능과 무능의 판단은 '어떤 측면에서?'라는 물음과 독립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소크라테 스는, 의도적으로, 이 점을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누군가 에 대해서 단적으로 그가 힘을 가지는가 그렇기 않은가를 답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수사술의 도구 적 힘을 믿는 사람은, 최소한 바로 그 힘의 존재여부와 관련해서, 소 크라테스의 논변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유태인들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말살시킬 수 있는 독가스를 개발한 나치 과학자 D는 소크라테스적 의미에서 결코 유능한 사람일 수가 없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따라서 D의 영혼에 나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명제들 모두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D가 유능했다고, 그리고 히틀러에게 잘 보이고 싶었지만 관련된 과학지식과 노하우가 현저히 부족했던 동료 과학자 E보다 더 유능했다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결과를, 관련된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산출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써 D는 E보다 더 유능한, 혹은 힘있는 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분명해지는 것은 수사술이 제공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힘을 소크라테스는 폴로스에게 제시하는 논변에서처럼 손쉽게, 그리고 단적으로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소크라테스의 논변이 보여주는 것은 그 힘이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해롭다는 것이다. 표면상 효력에 대한 비판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가치에 대한 비판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논변은 후자를 넘어 전자를 목표로 한다. 그는 수사술이 해롭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술이 무력함을 보이는 것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우리가 검토해온 바가 옳다면,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목표는 욕구의 대상에 관한 덜 자연스러운 해석에 기초해서만, 그리고 그의 논변에 내포된 한계를 폴로스가 전혀 간파하지 못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플라톤 자신은 소크라테스의 논변이 성공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다시 말해서, 그는 그것이 수사술의 효력 주장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 판단의 주요한 근거는 플라톤이 더욱 강력한 대화상대자 칼리클레스를 등장시켜 소크라테스에 도전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하에서 분명해지겠지만, 이 둘의 대화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제압된 듯 보였던 수사술의 효력 주장은 새로운 논의지평 속에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재등장한 수사술의 효력

주장은 대화편의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히 제압되지 않는다. 아니 그 것은 단순히 제압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크라 테스에 대해 공세적인 도전을 제기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소크라테스적 정치술 혹은 수사술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숨김없이 드러내고자 하는 플라톤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며, 동시에 플라톤이 스스로에게 중대한 철학적 과제를 부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Ⅳ. 소크라테스 대 칼리클레스

칼리클레스는 폴로스가, 고르기아스가 그랬듯, 동의하지 말았어야 할 명제에 동의함으로써 발이 묶이고[sympodistheis] 재갈이 물리게 [epestomisthē] 되었다고 말한다(482d8-e2). 문제의 명제는 부정의한 일 을 행하는 것이 당하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라는 명제이다. 칼리 클레스는 자연[physis]과 법[nomos]의 유명한 대비를 끌어들여 혼란을 해소하고자 한다. 법에 따르면, 부정의한 일을 행하는 것이 당하는 것보다 더 부끄럽고 나쁜 일이다. 하지만 자연에 따르면, 부정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부끄럽고 나쁜 일이다. 이어서 그 는 법의 기원에 관한 널리 알려진 설명을 제시한다.14) 인간의 법들을 정한 사람들은 약한 다수였음에 틀림없다. 그들은 약자였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는 그들보다 더 강한 자들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일을 수치스럽고 부정의한 일이라 말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인간 외의 동물들, 모든 도시들, 종족들의 예를 통해서 자연은 우리에게 더 우월하고 더 능력 있는 자가 더 열등하고 덜 능력 있는 자보다 더 많은 몫을 가지는 것이 정의로운 일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것은

<sup>14)</sup> 이것은 "유럽 문헌 중 부도덕 주의자를 옹호 하는 가장 유창한 진술(the most eloquent statement of the immoralist's case in European literature)"(Shorey 1933, 154)로 평가되었다.

"자연의 법[nomos tēs physeōs]"이다.15) 이어서 칼리클레스는 철학에 종사하는 삶에 대한 냉소와 비판을 퍼붓는다. 젊은 시절에 철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고상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러는 것은 우스꽝스럽고 사내답지 못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결과 로 우리는 "훌륭하고 명망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경험해야 할 것들에 미숙하게 될 수밖에 없기(484d1-2)" 때문이다. 그런 사람 은"나라의 법에도, 공적이나 사적인 거래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 사 용해야 할 말들에도, 인간적인 즐거움과 욕구들에도, 한마디로 모든 인간적인 관행들에 미숙한 자가 된다(484d2-7)." 그는 법정에서도 그 럴법한 변론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런 부정의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감옥에 끌려가도 아무런 말 도 하지 못할 것이다. 사악한 고발자를 만나면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기까지 할 것이다. 칼리클레스는 묻는다. 이런 것이 어떻게 지혜로운 것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스스로 자신을 도 울 수도 없고[mēte auton hautōi dynamenonboēthein]. 자신은 물론이 고 다른 누구도 큰 위험들로부터 구해 낼수 없는[mēde eksōsai ek tōn megistōn kindynōn]…말 그대로 치욕적인 삶을 살게 하는 기술이라면 말입니다(486b5-c2)."

이 구절에서 우리는 힘[dynamis]의 새로운 측면이 부각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돕고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힘이다. 칼리클레스는 소크라테스적 삶이 그러한 힘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한마디로 무능한[adynatos]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 소크라테스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소크라테스는 폴로스가 가장 큰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연설가들과

<sup>15) &</sup>quot;크세륵세스가 그리스로 군대를 이끌고 왔을때,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스 퀴다이인들에게로 쳐들어갔을 때, 그들이 의지한 것이 과연 어떤 종류의 정의였나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들이 정의로운 것의 본성, 즉 제우스 께 맹세컨대, 바로 자연의 법에 따라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483d)." 이 구절은 '자연법'의 첫 번째 용례로 유명하다.

참주들이 사실은 가장 적은 힘을 가진 자들임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칼리클레스가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힘의 측면과 관련해서 명백히 그 들은 가장 큰 힘을 가진 자들이다. 그들은 법정에서 그럴 법한 변론 을 제시할 수 있고, 부당하게 투옥당하거나 사형을 당하게 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능력과 힘을 가진 자들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도전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조금 뒤에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 물음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답은 문제의 힘을 철저히 내면화하는 전략을 통해 주어진다. 하지만 일단 논의의 초점은 많은 학자들이 『고르기아스』의 궁극적 관심사로 간주 하는 것, 즉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은지[hostis te eudaimōn estin kai hostis mē](472c9-d1), 혹은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hontina chrē tropon zēn](500c3-4)의 문제에 맞춰진다. 이 과정에서두 종류의 삶의 방식이 대조된다. 한편에는 칼리클레스가 옹호하는 삶이 있다. 그 삶은 "자신들의 욕구들이 최대한 커지도록 놓아두고 벌하지 않으며, 욕구들이 최대로 커졌을 때 용기와 지혜로 그것들을 섬길 수 있으며, 그때그때 욕구가 원하는 것들로 그 욕구들 을 충족시킬 수 있는(491e8-492a3)" 그런 삶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 것은 욕망을 최대화하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함으 로써 실현되는 삶이다. 칼리클레스가 보기에, 대중들은 이런 삶을 원 하지만 그것을 실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ou dynaton] 말한다 (492a3).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자신 들의 힘 없음[adynamia](492a5)을 감춘다. 이런 삶의 반대쪽에 소크 라테스가 옹호하는 삶이 있다. 이 삶은 "충족되지 않고 제한되지 않 는 삶이 아니라, 질서 지워지고, 적당한 정도로 충족되어 있으며, 그 때그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는 삶"(493c5-7)이다. 소크라테스는 칼리 클레스가 옹호하는 삶의 방식의 배후에 놓인 전제, 즉 쾌락을 좋음과 동일시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리고 최선의 상태를 성립하게 하는 것 이 구조[taxis]와 질서[kosmos]임을 주장한다. 몸과 영혼의 유비가 그 근거로 제시된다. 몸의 경우 구조와 질서를 갖춘 상태는 건강이고. 영혼의 경우 그 상태는 정의와 절제이다. 그런데 과도하게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건강을 해를 끼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욕망 충족을 금하게 한다. 영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부정의하고 무절제한 영혼은 과도한 욕구들로부터 떼어 놓음으로써 그것을 절제시켜야만 한다. 절제를 갖춘 상태가, 칼리클레스가 최선을 생각하는 무절제한 상태보다 영혼에 더 좋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두 종류의 삶의 대비. 그리고 절제와 정의에 의해 통제되는 삶의 옹호를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자기구제 능력으로서의 힘과 관련한 칼 리클레스의 도전에 대응할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부정 의한 일을 당하지 않고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힘과 기술[dynamis tis kai technē](509e1)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을 제기함으로써<sup>16</sup>) 다시 힘의 문제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다. 소크라테스는 우선 부정의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국가에서 자신이 통치자가 되 거나 참주가 되거나 정권의 일원이 되는 데 필요한 기술"(510a8-10) 이 아니겠느냐고 묻는다. 칼리클레스는 매우 멋진 설명이라며 동의한 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부정의한 일 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힘과 기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부정의한 일을 하는 쪽이 부정의한 일을 당하는 쪽보 다 더 부끄러운 일이라는 명제가 "무쇠나 아다마스 같은 논변들에 의 해 단단히 고정되고 묶여 있는(508e7-509a2)"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 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칼리클레스가 찬양하는 기술과 그것이 제 공하는 국가 안에서의 힘의 행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대가로 우리에 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513a6-7). 그러한 힘을 얻기 위해서 는 국가에서 힘을 가진 개인이나 다수와 그 개인이나 무리들과 친하 게 지내야만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과 비슷한 종류의 사 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즉 영혼의 온전함을 훼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sup>16)</sup>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힘[dynamis]과 바람[boulēsis]이라는 두 선택지를 제시하고, 전자라는 답을 이끌어 낸다.

소크라테스와 칼리클레스의 대립은, 표면적으로는, 자기보호 능력 으로서의 힘이라는 동일한 개념을 둘러싸고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염두에 두고 있는 힘은,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는 것이다. 칼리클레스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에 대해 이 야기할 때,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진 욕망과 쾌락을 관철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힘, 그리고 자신의 욕구의 실현 과 충돌하는 외적 방해 요인을 제거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힘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정의를 당하는 것을 방지해 줄 힘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에 대해 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할 때 흔쾌히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소크라테스가 강조하고 있는 자기보호와 힘은 칼리클레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자기보호는, 일차적 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내적인 위험으로부터의 영혼의 온전함의 보존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일이 그의 영혼에 발생하는 무질서와 구조의 파괴라는 사실로부터 자연스 럽게 따라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일차적 관심 사는 부정의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줄 힘이 아니라, 누군가가 부정의 한 행동을 원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해 줄 내적인 힘인 것이다.

철저히 내면화된 의미에서의 자기보호,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으로서의 힘과 기술의 개념은 『고르기아스』내에서 소크라테스가 주장하고 있는 바들과 일관될 뿐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삶 자체와도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폴로스와의 논전에서 소크라테스가 목표로 했던 것, 즉 고르기아스적수사술의 무력함을 보이는 일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내면화된 자기보호와 그에 연관된 힘이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칼리클레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보호,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으로서의 수사술의 힘은, 보다 더 통속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르기아스적 수사술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킴으로써, "사느니 죽는 게더 나은 노예나 겪을 일을 겪는 것…부정의한 일을 당하고 진창에 짓밟혀도 자기자신과 자신이 돌보는 자를 도울 수 없는(484b1-4)"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논변의 이러한 한계는 단순히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만은 아니다. 필자의 판단이 옳다면, 이것은 플라톤이 『고르기아스』의 마지막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했던 포인트였다.

515d에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로 하여금페리클레스, 키몬, 밀티아 데스, 그리고 테미스토클레스와 같은 아테네의 저명한 정치가들이 훌 륭한 시민들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칼리클레스에게 묻고, 그렇다는 답 을 얻어내도록 만든다. 소크라테스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들이 훌륭한 시민이었다면 그들은 아테네 시민들을 더 나은 시민들로 만들 었어야만 했다. 그런데 아테네 시민들이 페리클레스에 의해 더 나은 시민들이 되었다면, 그들은 더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야 하고, 정의 로운 사람은 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온순한 사람이 되었 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와 반대되는 것이었다. 그 들은 페리클레스가 통치하기 전보다 더 야성적인 자들이 되어 그에게 횡령선고를 내리고 사형선고까지 내릴 뻔했다. 테미스토클레스와 밀 티아데스의 처지도 다르지 않았다. 결론은 위에 열거된 사람들이 훌 륭한 시민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연설가라면, 그들은 참된 수사술[hē alēthinē rhētorikē](517a5)을 사용한 것도 아 니고-사용했다면 그렇게 내팽개쳐지지 않았을 것이므로-아첨술을 사용한 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때 소크라테스가 '참된 연설술'이라 부르고 있는 것은 그가 이미 504d에서 "기술을 가진 저 훌륭한 연설 가"를 묘사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 즉 모든 연설과 활동의 목표가 청자의 영혼에 덕들을 생기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악덕들을 제거하는 일인, 그러한 종류의 연설술일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참된 연설술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인가? 자연스러운 답은 그 사람 은 소크라테스라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이 답은 소크라테스가 자신 이 참된 정치술을 시도하며 정치를 하는[epicheirein tēi hōs alēthōs politkē technē kai prattein ta politika] 당대의 유일한 인물이라 생각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에서도 뒷받침되는 것처럼 보인다(521d7).17) 그는 보답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최선을 목적으로 발언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저명한 정치가들에게 제기했던 바로 그 질문을 소크레테스 자신에게 던질 수 있을 것 같다. 소크라테스. 그대는 아테네 시민들의 영혼을 더 좋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데 성공 했는가? 그대가 말하는 참된 수사술은, 고르기아스가 자신의 수사술 의 힘을 자부하는 것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아테네 시민들의 영혼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만일 소 크라테스가 참된 수사술-정치술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는 아테네 시민들의 영혼을 좋은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로 그는 페리클레스와 같은 사람들이 겪은 수모를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실제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잘 알고 있다. 페리클레스는 거의 사형선고를 받는 단계에서 그친 반면,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 소크라테스는, 어떤 점에서, 그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 의 실패를 가장 극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 보인다. 그는 참된 수사술을 실천하는 유일한 인물이지만 아테네 시 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사람이었고, 그는 참된 정치술을 실천하 는 유일한 인물이지만 아테네 시민들을 좋은 상태로 만드는 데 실패 한 사람이었다.18)

<sup>17)</sup> 도즈와 어윈은 모두 참된 수사술이 504d 이하에서 설명되고 있는 정치술을 가리키고 있음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어윈은 그것을 '소크라테스 적 정치술'이라고 명시적으로 부르고 있다(Dodds, 360; Irwin (1979), 236).

<sup>18)</sup> 이 점과 관련해서, 소크라테스가 참된 정치술을 '시도하고[epicheirein]' 있다고 말하고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이 표현에는 그가 실천하고 있다[prattein]고 이야기되는 정치적 활동[ta politika]이 올바른 목적 설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의 성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시도함의 계기를 강조하는 예로 Irwin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아테네의 저명한 정치가들의 실패를 공격하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참된수사술-정치술의 한계를 두드러지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플라톤이 미처 눈치채지 못 한 결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든 극적 장치로 필자에겐 보인다. 플라톤의 의도는 그가 『고르기아스』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역사적인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예견하는 말을 하 도록 만든 것에서도 나타난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언젠가 법정에 서서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느니 하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다면, 일이 어떻게 일어나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522b3-c3).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테네 시민들의 생각을 설득을 통 해 바꿀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전혀 갖지 않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물론 이 사실은 그를 조금도 동요시키지 않는다. 그는 아첨하 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삶을 마감하는 것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편안히 죽음을 감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소 크라테스의 이런 엄숙함과 도덕적 고결성은 마지막 순간까지 칼리클 레스를 털끝만큼도 움직이지 못한다. 칼리클레스는 자신의 운명을 예 감하는 소크라테스에게 마지막으로 퉁명스러운 질문을 던진다. "그러 면 소크라테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도울 힘이 없는 상태로 있는[adynatos ōn hautōi boēthein] 것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522c4-5)" 칼리클레스의 눈에 소크라테스는, 그 자신이 인정 한 대로, 외적 상황에 영향력을 미쳐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을 가지지 못한 인물, 한마디로 힘없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칼리클레스에게서 발견되는 한 가지의 독특한 사실에 주목해왔다: 그는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유일하게, 대화편의 마지막 순간까지 소크라테스에 의해 완전히 논박되지 않는 인물이다.19)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럴 법한한 가지 설명은 칼리클레스가 대변하는 입장이 소크라테스적인 생각

<sup>1979, 240</sup>과 Brickhouse &Smith 2000, 8 n 11을,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Levy 2005, 219-225를 들 수 있다.

<sup>19)</sup> eg. Cooper 1999, 52; Beversluis 2000, 339.

들-즉 소크라테스 자신이 말했거나 그것들이 함축하는 바들-에 의 해서 완전히 논박되지 않는 것임을 플라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것은 또한 플라톤에게 칼리클레스가 던지는 도전이 강력한 것 이며, 그가 이 도전의 심각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방증 으로도 읽힐 수 있다.이 도전의 내용과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다양 한 설명들이 제안되어 왔다.20) 하지만 본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어 왔 던 주제, 즉 기술과 힘이라는 주제를 염두에 둔다면 다음과 같은 답 역시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대화편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명백 히 부각되고 있는 것은 칼리클레스가 옹호하는 외적이고 현실적인 자 기보호의 힘과 소크라테스적인 내면화된 자기보호의 힘사이의 긴장과 충돌이다. 위에서 인용된 칼리클레스의 퉁명스런 질문은 (일상적 의 미에서 볼 때) 무력하게 부당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소크라테 스의 처지에 대한 야유를 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크라테스 의 답변은 그것에 대한 플라톤의 변호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문제 는 위와 같은 플라톤의 변호가, 그것이 보여주는 숭고함과 결연함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미래에 겪게 될 일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예견은 철저히 비관 적인 전망을 표현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살아 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삶들을 영위해 갈 것이고, 그들의 판단과 의견 은 고르기아스와 같은 연설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다.21) 그리고

<sup>20)</sup> 쿠퍼는 소크라테스적 도덕심리학(Socratic moral psychology)의 한계를, 특히 아크라시아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플라톤이 인지하고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본다(Cooper 1999, 32). 반면 울프는 소크라테스의 논박술이 영혼의 조화를 산출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자각을 지적한다(Woolf 2000, 32-33).

<sup>21) 『</sup>고르기아스』내에서 더 깊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수사술이 가지는 도구적 힘은 청자들의 즐거움을 조작하는(manipulate) 능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능력에 대해서, 그것이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한 그것은 기술이 될 수 없고 기껏해야 숙련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칼리클레스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연설가들이 이 비판에 동요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설사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 소크라테스가 기술과 관련해 요구하는 높은 기준때문에, 불가능함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연설

그 과정에서 소크라테스와 같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 서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물론 『고르기아스』의 소크라테스 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입장에 따르면, 정말로 힘을 가진 것은 소크라 테스이고, 무력한 것은 고르기아스와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다중이다. 하지만 이런 선언이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종적 답이 라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국가와 그것의 구성원들을 더 나은 방향으 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포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어떤 면에서 소크라테스적인 내면화된 정치술은 진정한 의미의 politikē라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것은 정치체제와 구 성원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라기보다 는, 그런 변화는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전제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그리고 왜 자신의 도덕적 진정성(moral integrity)을 유지해야 하는가를 일러주는, 일종의 유리적 원칙의 천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플라톤은 한편으로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태도를 적극 적으로 옹호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소크라테스적 삶의 반대편에 칼리클레스의 냉정한 현실주의를 균형 있게 위치시킴으로써, 그리고 후자로 하여금 전자의 무능을 끝까지 주장하게 함으로써, 보다 실질 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술, 즉 어떻게 국가와 그 성원들을 더 나은 상 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처럼 필자에겐 보인다. 그것은 『고르기아스』의 대화상대자들이 주 장하는 수사술의 힘을, 폴로스와의 논전에서처럼, 그저 존재하지 않는 허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질적 힘으로써, 그것과 경 쟁해서 그것을 넘어설 힘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정당화해야 할 하나의

가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즐거움을 산출하는 데 가장 유능한-그것이 기술 덕분이든 숙련 덕분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능력 덕분이든-사람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주장대로,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순간 기술의 성립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라면, 어차피 즐거움의 산출을 기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들의 라이벌은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선포된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동에 대한 비판은, 그목적에 대한 가치판단의 측면-즉 그것이 아첨이라는 점-을 분리해 내고 나면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든 것이다.

경쟁자이자 도전으로서 인정함을 의미할 것이다. 이제 플라톤은 수사술이 아닌 철학이, 즐거움 아닌 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술이,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와 그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 답은 『고르기아스』내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고르기아스』이후의 대화편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수행된다. 『고르기아스』에서 부각되는 소크라테스적 정치술의 한계와 그것에 저항하는 수사술적 힘의 권리주장을 염두에 둘 때, 『국가』에서 제시될 정치술은 더 이상 영혼 내면의 질서를 확보하는 개인적 차원에서 그칠수 없는 것이었다. 『국가』에서 플라톤이 정치적 행위들이 수행되는 환경 자체, 즉 국가 전체의 구조와 그 구성원들의 교육 전반에 대한체계적 계획을 제시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투 고 일: 2012. 04. 15. 심사완료일: 2012. 05. 04. 게재확정일: 2012. 05. 05.

### 인용문헌

- 김남두, 「<고르기아스>에서 플라톤의 수사술 비판」, 『서양고전학연구』, 27, 2007.
- 김인곤, 『고르기아스』, 이제이북스, 2011.
- 박규철, 『수사학과 도덕성-플라톤 「고르기아스」읽기』, 한국기술정보 ㈜, 2012.
- Barney, R. "Gorgias' Defense: Plato and His Opponents on Rhetoric and the Good." *Th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vol. 48 issue. 1, 2010, 95-121.
- Beversluis, J. Cross-Examining Socrates: A Defence of the Interlocutors in Plato's Early Dialogu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Brickhouse, T. C. and Smith, N. D., *The Philosophy of Socrates*, Boulder, 2000.
- Cooper, J. M. "Socrates and Plato in Plato's *Gorgias*." In *Reason and Emotion*, Princeton, 1999, 29-75.
- Dodds, E. R. Plato, Gorgias, Oxford, 1959.
- Franklin, L., "Technē and the Teleology in Plato's Gorgias", *Apeiron* 38-4, 2005, 229-255.
- Irwin, T., Plato Gorgias, Oxford, 1979.
- Kahn, C., "Drama and Dialectic in Plato's Gorgias",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I, 1983, 75-121.
- Levy, D. "Technē and the Problem of Socratic Philosophy in the Gorgias", *Apeiron*, 38-4, 2005, 185-227.
- Mctighe, K., "Socrates on Desire for the Good and the Involuntariness of Wrongdoing: *Gorgias* 446a-468e., in Benson, H. H. *Essays*

on the Philosophy of Socrates, Oxford, 1992.

Santas, S. Socrates: Philosophy in Plato's Early Dialogues, London, 1979.

Scott, D. Plato's Meno, Cambridge, 2006.

Shorey, P. What Plato Says, Chicago, 1933.

Woolf, R., "Callicles and Socrates: Psychic (Dis)harmony in the Gorgias",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XVIII, 2000, 1-40.

#### **ABSTRACT**

#### Technē and Dynamis in Plato's Gorgias

Chun, Hun-Sang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ncepts of techne and dynamis in Plato's Gorgias, and thereby aims to bring out a relatively unnoticed aspect of the unity of the dialogue. In the earlier part of Socrates' dialogue with Polus, the discussion centers around whether rhetoric is a techne, where the underlying assumption is that a technē is more powerful than a mere empeiria. But in the following discussion the focus is shifted to a question that is more directly connected to the concept of dynamis, i.e., whether a rhetorician is powerless or not. Through a careful reading of the relevant passage. this article shows that Socrates' refutation of Polus has a serious limitation: it assumes a unitary conception of power and in doing so, rules out what we might call an 'instrumental conception of power'. What is interesting, however, is the fact that Plato himself is clearly aware of the limitation of Socrates' refutation. This awareness is expressed by the appearance of the strongest opponent to Socrates, Callicles. Callicles clashes with Socrates in relation to another aspect of the concept of power: power as the capacity of self-defense. In this respect, Callicles remains basically undefeated and unconvinced to the end of the dialogue. This unique dramatic setup indicates that Plato takes an important philosophical task or challenge upon himself, the answers to which are given in his later

dialogues, such as in the Republic.

Keywords: craft, power, rhetoric, desire, self-defense